

대학생의 부모화 경험이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유창호(상명대학교)**

장석진(상명대학교)***

<국문초록>

본 연구는 대학생의 부모화 경험이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대학생의 부모화 경험과 학업지연행동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서울시 및 광역시에 위치한 4년제 대학교 재학 중인 대학생 340명이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과 Baron과 Kenny(1986)의 검증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화 돌봄은 학업지연행동, 자기효능감과 상관계수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부모화 불공평은 학업지연행동과는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효능감과 학업지연행동은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의 부모화 불공평 경험과 학업지연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은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화라는 환경적 변인이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새로운 결과를 제시하는 한편, 부모화 경험과 학업지연행동, 자기효능감 간의 구체적 관계성 및 경로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업지연행동을 호소하는 대학생을 위한 상담 개입 방식이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주제어: 부모화, 부모화 돌봄, 부모화 불공평, 학업지연행동, 자기효능감

* 이 논문은 유창호의 석사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제1저자: 상명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일반연구원

*** 교신저자: 상명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schang@smu.ac.kr)

I. 서론

Benjamin Franklin의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는 말이 명언으로 남고, 영국의 극작가 George Bernard Shaw의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라는 묘비명이 오늘날 우리에게 공감을 주는 것을 보면, 미루는 행동은 예나 지금이나 쉽게 관찰될 수 있고 누구나 고민하는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할 일을 기한 내에 시작하지 못하거나 마감하지 못하고 미루는 행위를 지연행동(procrastination)이라고 한다. 지연행동은 우리의 일상생활, 업무, 집안일 등 다양한 삶 속에서 나타나는데, 이중에서도 학업과 관련된 영역에서 관찰할 수 있는 지연행동을 학업지연행동이라고 한다(Lay, 1986; Solomon & Rothblum, 1984).

학업지연행동은 대학생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대학생은 청소년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학습 환경이 자율적이며, 능동적인 선택과 수행이 주어지는 독립성을 획득해 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 학업지연행동은 문제가 될 수 있다(신을진, 고진경, 2011; 유지원, 강명희, 김은희, 2013; 이재옥, 2017). 실제로 대학생의 학업지연행동에 관한 연구에서는 60%가 학업지연행동을 도움이 필요한 심각한 습관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고, 70~95%의 학생들이 학업지연행동을 경험하며 심각한 지연행동을 하는 학생 또한 20~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광숙, 김정희, 2007; Knaus, 2004; Steel, 2007; Onwuegbuzie, 2000). 국내 선행연구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과제 및 시험공부를 할 때 각 30%, 40%의 지연행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되었으며, 그 중 80% 이상의 대학생들이 시험을 준비할 때 나타나는 자신의 지연행동을 변화시키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승호, 서은희, 2005; 윤숙경, 1996). 이렇듯 학업지연행동은 대학생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며, 학업지연행동이 지속될 경우 개인은 자신에 대한 비난이나 후회를 하며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경험으로 이어진다(Ferrari, Johnson, & McCown, 1995).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크게 외적 변인과 내적 변인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외적 변인으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 부모의 정서적 지지, 학습자가 지각하는 환경 또는 동기와의 다양한 상호작용, 부/모의 권위적인 또는 허용적인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과보호 등이 확인되었다(노하연, 2017; 이선영, 김성일, 봉미미, 2016; 2016; 이지선, 김정민, 2016; 황임숙, 장성숙, 2010; Macintyre, 1962; Missildine, 1963; Sommer, 1990).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학업지연행동의 원인을 살펴보면 사용된 기존의 외적 변인들, 예를 들어 부모의 과보호, 심리적 통제 등은 주로 부모-자녀 관계에서 ‘부모의 역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양육은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이고, 이러한 일방적인 방향이 어찌 보면 건강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김용태, 2000). 그러나 부모-자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자녀의 역할’에는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다. 그 결과 학업지연행동과 부모 변인간의 관계를 살

펴본 연구들은 부모-자녀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살피는 데에 제한이 생기게 된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부모 변인은 크게 부모 스스로의 인식을 보는 입장과 부모의 양육태도를 자녀가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입장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강선모, 임혜경, 2012; 이주현, 2017; 황임숙, 장성숙, 2010). 전자의 경우 부모 입장에서 양육태도를 알아보는 것이므로 부모의 일방적인 생각을 살펴볼 수 있게 될 경향이 크며, 후자는 부모가 제공하는 양육태도에 대해 자녀가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살펴보기 때문에 자녀의 입장에 더 초점을 맞추어 살펴볼 가능성이 높다. 이 두 변인 중 자녀가 지각한 부모변인이 자녀의 주관적 경험과 정서를 살펴보기 때문에 자녀의 발달을 더 많이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Harold, Fincham, Osborne, & Conger, 1997), 양육태도, 다시 말해 돌봄 행동은 부모가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는 관점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부모의 사망, 이혼 또는 별거 등 다양한 가족 유형으로 인해 돌봄 행동은 더 이상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국한시킬 수 없게 되었다(조은영, 정태연, 2005; Jurkovic, G. J., Thirkeild, A., & Morrel, R, 2001). 가족 유형이 다양해질수록 자녀가 가족 내에서 맡게 되는 역할 또한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자녀가 가족 내에서 겪는 경험과 구성원과의 다양한 상호작용, 그리고 자녀의 돌봄 행동은 기존의 부모 변인으로만 살펴보기에는 한계점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여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변인을 살펴볼 수 있는 변인이 바로 부모화이다(김용태, 2000; 박지아, 2016; 이선영, 김성일, 봉미미, 2016; 전현수, 2013; Jurkovic, 1997).

부모화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역할이 바뀐 것으로, 성장기 자녀들이 부모의 역할과 그에 따라오는 과다한 책임 및 돌봄을 오랫동안 떠맡는 현상(Stein, Riedel, & Rotheram-Borus, 1999; 송은주, 이지연, 2016)이다. 부모 자녀의 관계에서 자녀가 부모의 역할을 습득하는 것, 그리고 가족 체계에서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자녀가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거나 부모를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가족 체계가 가진 특성이기도 하다(강선모, 2014; 김용태, 2000). 특히 한국 사회에서 자녀가 부모를 돌보고 배려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부모화가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다(문비, 2006; 전현수, 2013; 한아름, 2017). 부모화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모 역할을 자녀가 대신 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책임과 심리적 어려움이 누적될 경우 대인관계 문제, 자기효능감, 진로미결정, 수치심, 완벽주의, 우울, 불안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됐으며, 자녀가 부모의 역할을 지나치게 맡아서 하게 되면 자녀는 자신의 욕구를 억압하면서 책임감에 집착하고, 가족에 대한 충성심이 과도하게 높아질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와 긴장을 지속해서 경험한다는 결과를 나타냈다(문비, 2006; 송승안, 2017; 최아름, 송현주, 2014; Chase, 2000). 그러나 이와는 달리 자기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진로 미결정에 있어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기

도 했다(조이정, 2015; McMahon & Luthar, 2007).

이렇게 일관되지 않은 연구 결과는 연구자들이 부모화의 하위요인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고, 부모화 경험은 이에 따라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냈다(Jurkovic, Kuperminc, Sarac, & Weisshaar, 2005). 이 과정에서 부모화는 물리적 부모화와 정서적 부모화를 합친 ‘부모화 돌봄’과 ‘부모화 불공평’으로 나누어지게 된다(강선모, 2013). ‘부모화 돌봄’은 자녀가 가족구조 내에서 맡고 있는 물리적, 정서적 돌봄의 정도를 의미하며 ‘부모화 불공평’은 자신의 부모화된 노력들이 가족들로부터 적절하게 지지받고 격려되는지의 정도를 의미한다(김석준, 2017). 이러한 구분은 부모화 경험을 겪은 자녀라 할지라도 하위유형에 의해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화 돌봄이 높을수록 안녕감이나 자기자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나(강선모, 2013; 강선모, 2014), 부모화 불공평은 대인관계 유능성, 완벽주의, 자기효능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다(최명선, 강지희, 2008; 김석준, 2017). 또한 부모 변인은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적 변인인데, 부모화는 학업지연행동과 함께 연구된 선행연구가 거의 없다. 이는 부모화에 관한 연구가 개인의 전반적인 기능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사회구조 안에서 나타나는 주제들과도 함께 다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석미정, 2016).

한편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 변인으로는 의지통제, 완벽주의, 성취목표 지향성, 자기효능감,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평가불안 등이 있는데(계수영, 박기환, 엄소용, 2011; 김중운, 양민정, 2014; 류윤선, 이아라, 2017; 배대식, 2009; 성지영, 임은미, 2012; 전보라, 김정섭, 2015; 한영숙, 2011; Rothblum, Solmon & Murakami, 1986), 이 중 자기효능감이 학업지연행동을 가장 효과적으로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서은희, 2006; 임성문, 2006). 자기효능감이란 스스로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으로 특정 목표에 도달할 수 있으며 그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믿는 자기 신념이다(Bandura, 1977).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특정한 상황에 닥치더라도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고 여겨 자신에 대한 확신이 줄고 상황을 회피한다. 반면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 부딪친다고 해도 이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 자신감을 느끼고 상황에 맞는 대응 행동을 하게 된다(김미진, 권성호, 전현수, 2014). 선행연구에 의하면 우울한 대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대학생들보다 자기효능감의 차이가 컸으며,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스트레스에 취약하거나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 또한 낮은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능력으로 과제를 해낼 수 없다고 생각하여 과제수행을 피하고 과제에 대한 집중력이 낮으며, 시간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연행동을 하게 된다고 보고되었다(김금순, 2011; 홍혜영, 1995).

학업지연행동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기효능감이 지연행동과 관련 있는

변인으로 가장 큰 효과크기를 보였으며, 지연행동과 관련된 다수의 변인을 사용하여 중다회귀분석 연구를 수행한 연구들에서는 유일하게 자기효능감이 유의미하게 지연행동을 예측했다. 이와 더불어 국내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과 학업지연행동은 비교적 높은 상관을 나타냈으며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습자의 지연행동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은희, 2006; 이선영, 김성일, 봉미미, 2016; 임성문, 2006; 홍승일, 현명호, 2005; 황영석, 2015; 황임숙, 장성숙, 2010, Ferrari, Paker, & Ware, 1992; Van Eerde, 2003). 이처럼 자기효능감은 학업지연행동을 예측하는 데 효과적이며 일관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내적 변인으로 밝혀져 왔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종합해보면 자기효능감은 학업지연행동을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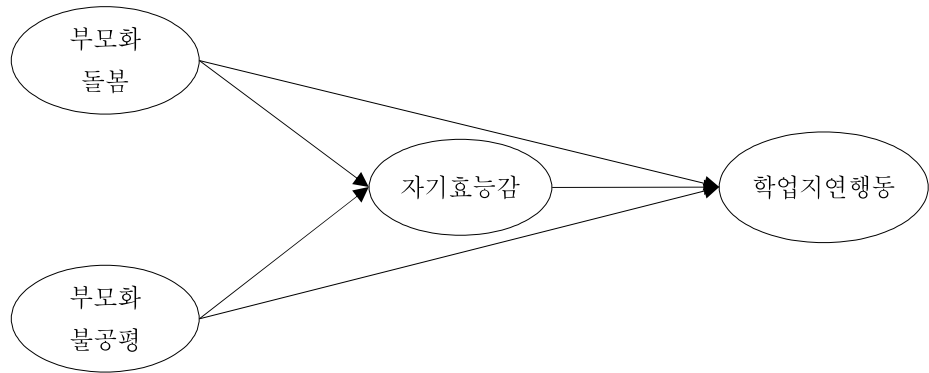
학업지연행동과 관련된 내적 변인과 외적 변인들의 선행연구들 종합해볼 때, 학업지연행동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이 연구되었으며 학업지연행동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선행요인을 살펴보는 연구가 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변인과 개인 내적 특성을 함께 살펴보는 연구는 미비하다. 학업지연행동에 관한 종합적인 시각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지연행동을 야기하는 환경적 요인뿐만 아니라 이를 밝히기 위한 학습자의 개인적 특성 등과 같은 내적 요인들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이선영, 김성일, 봉미미, 2016). 또한 기존의 연구들은 부모화와 자기효능감이 관련이 있다는 것과 자기효능감이 학업지연행동을 효과적으로 예측하는 변인임을 밝혔으나 부모화와 학업지연행동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역할을 확인하거나 매개 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부모화 경험, 학업지연행동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살펴보고, 부모화 경험, 학업지연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부모화 경험은 이미 경험한 것이기에 상담적 개입을 통한 변화가 쉽지 않은 것에 반해, 자기효능감은 비교적 상담에서의 개입이 가능한 변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통해 대학생의 학업지연행동 감소를 도울 수 있는 심리 내적, 환경적 변인을 탐색하고 이와 관련된 상담 개입 방법, 상담 프로그램 구성 등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모형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모형에서 자기효능감은 매개변수, 학업지연행동은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부모화 돌봄과 부모화 불공평은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대학생의 부모화 돌봄 및 부모화 불공평 경험, 학업지연행동,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대학생의 부모화 돌봄 및 부모화 불공평 경험, 학업지연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2.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4학년 대학생 340명에게 2017년 6월부터 9월 사이에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그중 무성의하게 응답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많은 설문자료 31부를 제외한 총 192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본은 30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남학생 117명(37.9%), 여학생은 192명(62.1%)이었다. 학년에서 1학년은 95명(30.8%), 2학년은 57명(18.4%), 3학년은 66명(21.4%), 4학년은 91명(29.4%)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표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	구분	표본 수(n)	빈도(%)
학년	1학년	95	30.8%
	2학년	57	18.4%
	3학년	66	21.4%
	4학년	91	29.4%
성별	남학생	117	37.9%
	여학생	192	62.1%
	전체	309	100.0%

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부모화 경험 척도(전현수, 2013), 학업지연행동 척도(박재우, 1998), 자기효능감 척도(김아영, 1997)를 사용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성 확보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신뢰도분석 결과, 각 변인의 신뢰도 계수는 부모화 돌봄(0.81), 부모화 불공평(0.84), 자기효능감(0.89), 학업지연행동(0.81)로, 측정도구 모두 신뢰도계수(Cronbach α)값이 0.7 이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한 척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변수의 측정도구

구분		문항 번호	문항 수	신뢰도
독립 변수	부모화 돌봄	1, 2, 3, 5, 6, 8, 9, 12, 13, 14*, 16*, 17, 18, 19*, 22, 24, 26, 27, 28, 29, 30	21	.81
	부모화 불공평	4, 7, 10, 11, 15*, 20, 21*, 23, 25	9	.84
매개 변수	자기 효능감	자신감 1*, 3*, 5*, 10*, 11*, 13*, 16*	7	.86
		자기조절효능감 2, 4, 7, 8, 12, 14, 17, 19, 20, 21, 23, 24	12	.84
		과제난이도선호 6*, 9*, 15, 18, 22	5	.85
		전체	24	.89
종속 변수	학업 지연 행동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9	.81

*은 역채점 문항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전 결측치 확인 및 자료에 대한 전체적인 분포를 살펴보는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 측정된 자료의 신뢰도 분석, 변수 간의 상관성을 살펴보는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했다. 이를 위한 분석도구로 SPSS 23.0을 활용하였다. 둘째, 연구모형의 검증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매개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Baron과 Kenny(1986)의 매개 효과 분석을 사용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마지막으로 매개 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기술통계분석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부모화 돌봄의 평균은 2.38($SD = 0.501$)이며 부모화 불공평의 평균은 2.31($SD = 0.706$)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기효능감의 평균은 3.24($SD = 0.511$)로 나타났으며 하위변인별로 살펴보면 자기조절효능감의 평균이 3.56($SD = 0.502$)으로 가장 높았으며 자신감 평균이 3.09($SD = 0.813$), 과제난이도선호 평균이 2.70($SD = 0.791$)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업지연행동의 평균은 2.75($SD = 0.501$)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종합해보면, 부모화 돌봄, 부모화 불공평, 학업지연행동은 ‘그렇지 않다’와 ‘보통이다’의 중간 수준이며, 자기효능감은 ‘보통이다’와 ‘그렇다’의 중간 수준인 것으로 살펴볼 수 있다.

<표 3> 변인의 기술통계 분석

구분	항목	측정항목	빈도	평균	표준편차	분산
독립 변수	부모화	부모화 돌봄	309	2.38	.501	.251
		부모화 불공평	309	2.31	.706	.499
매개 변수	자기효능감	자신감	309	3.09	.813	.662
		자기조절효능감	309	3.56	.502	.252
		과제난이도선호	309	2.70	.791	.627
		전체	309	3.24	.511	.262
종속 변수		학업지연행동	309	2.75	.501	.251

2.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다음 <표 4>에 제시된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화 돌봄은 타 변인인 학업지연행동, 자기효능감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화 불공평은 학업지연행동($r=.26, p<0.1$)과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자기효능감($r=-.32, p<0.1$)과 부적 상관이 있었다. 셋째, 학업지연행동은 자기효능감($r=-.47, p<0.1$)과 부적 상관이 있었다.

종합해보면, 부모화 돌봄 경험은 자기효능감, 학업지연행동과 상관이 없는 반면, 부모화 불공평 경험은 학업지연행동을 정적으로 예측하고, 자기효능감은 부적으로 예측함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자기효능감은 학업지연행동을 부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화 돌봄 변인을 제외하고 부모화 불공평과 학업지연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4>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번호	변수	1	2	3	4	4-1	4-2	4-3
1	부모화 돌봄	-						
2	부모화 불공평	.40**	-					
3	학업지연행동	-.01	.26**	-				
4	자기효능감	.00	-.32**	-.47**	-			
4-1	자신감	-.15**	-.42**	-.31**	.80**	-		
4-2	자기조절효능감	.10	-.21**	-.51**	.81**	.42**	-	
4-3	과제난이도선호	.06	-.08	-.22**	.70**	.39**	.40**	-
	왜도	.56	.34	.09	-.35	-.08	.13	.18
	첨도	.18	-.38	.40	.37	-.30	.01	-.13

** $p < .01$

1. 부모화 돌봄, 2. 부모화 불공평, 3. 학업지연행동, 4. 자기효능감, 4-1. 자신감, 4-2. 자기 조절효능감, 4-3. 과제난이도선호

3. 부모화 불공평과 학업지연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대학생의 부모화 불공평 경험과 학업지연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를 갖는지 확인하고자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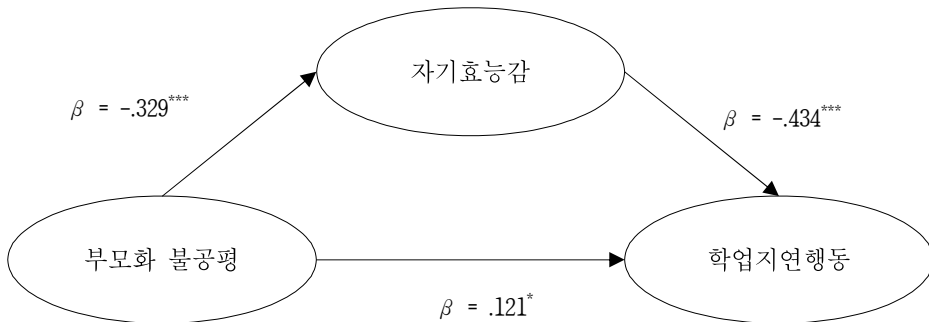
<표 5> 대학생의 부모화 불공평과 학업지연행동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분석 및 예측변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t	R^2	F	종속변인
	B	표준 오차					
1단계 부모화 불공평	-.239	.039	-.329	-6.114***	.109	-37.384***	자기 효능감
2단계 부모화 불공평	.187	.039	.264	4.794***	.070	22.984***	학업지연 행동
3단계 부모화 불공평 자기효능감	.086 -.425	.038 .052	.121 -.434	2.286*	.238	47.725***	학업지연 행동

*** $p < .001$

1단계에서 부모화 불공평은 자기효능감을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329, p < .001$). 2단계에서 부모화 불공평이 학업지연행동을 유의미하

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64, p < .001$). 3단계에서 부모화 불공평과 자기효능감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자기효능감이 학업지연행동을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하였으며($\beta = -.434, p < .001$), 부모화 불공평이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였다($\beta = .264$ 에서 $\beta = .121$ 로). 또한 대학생의 부모화 불공평이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총효과가 .264고 직접효과는 .121였으며 간접효과는 .143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매개변인인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143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 = -4.903$ 으로 Z 의 절댓값이 1.96 이상이므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Sobel Test Statistic $Z = -4.903, p < .001$

[그림 2] 대학생의 부모화 불공평 경험과 학업지연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수도권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이 부모화 경험이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결과를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부모화 돌봄, 부모화 불공평 경험, 학업지연행동,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부모화 돌봄은 자기효능감, 학업지연행동과 상관이 없는 반면, 부모화 불공평 경험, 학업지연행동, 자기효능감은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부모화 불공평 경험과 학업지연행동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부모화 불공평 경험을 많이 할수록 학업지연행동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학업지연행

동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부모 변인의 중요성을 시사해왔던 기존 선행연구들을 지지하면서도(노하연, 2017; 이선영, 2016; Missildine, 1963; Ferrari & Olivette, 1994), 선행연구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부모화 불공평 경험이 학업지연행동을 유발하는 환경적 변인으로 예측될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대학생의 부모화 불공평 경험과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는 약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화 불공평 경험을 많이 할수록 자기효능감이 낮아지는 것이다. 이는 부모화 경험 내에서 불공평의 지각이 높은 경우 낮은 수준의 유능감을 보고한다는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Jurkovic, Kuperminc, Perilla, Murphy, Ibañez, & Casey, 2005). 그러나, 부모화가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높이거나(Jurkovic, Kuperminc, Sarac, & Weisshaar, 2005), 오히려 자기효능감과 상관이 없다는 연구(강선모, 2013; 문정덕, 2006)와 배치되는 결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양육태도, 가족 구조의 역기능이 자녀의 자기효능감에 중요한 변인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의 시사점(홍영란, 2009; Ryan, 1996) 부모의 양육태도이자 가족 구조의 역기능적 구조 중 하나인 부모화 불공평 경험 또한 자기효능감과 유의미한 관계를 가질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실제로 본 연구 결과에서도 부모화 불공평 경험이 자기효능감과 부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부모화 경험과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가 일관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추후 연구에서 부모화 불공평 경험과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기효능감과 학업지연행동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대학생의 경우 학업지연행동을 적게 하며, 자기효능감이 낮은 대학생은 학업지연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대학생들이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업지연행동이 낮아지게 된다고 보고한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맥락을 같이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임성문, 2007; 최지연, 2001; 황임숙, 장성숙, 2010; Steel, 2007; Tuckman, 1991; Van Eerde, 2003).

둘째, 대학생의 부모화 불공평 경험과 학업지연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자기효능감이 부분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의 부모화 불공평 경험이 학업지연행동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면서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가족구성원 또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적절한 평가와 지지를 받지 못한 자녀는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해 부적응적인 충성심을 보이게 되고(김용태, 2000), 이는 부모-자녀와의 관계에서 의존적인 형태로 나타나 자녀의 자율적인 사고를 방해할뿐만 아니라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자기효능감을 낮출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 자녀는 자신의 수행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회피하기 위해 학업지연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예측해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부모화 불공평 경험을 한 자녀는 가족관계 내에서 자신의 역할 또는 돌봄 행동에 대해 적절한 지지나 격려를 받지 못한다(Jurkovic, 1997). 이로 인해 자녀는 자신의 행동을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여겨 자신의 능력에 대해 의심하고 비관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 결과 자녀는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기효능감이 낮아져 해야 할 일을 미루게 되고 회피하는 등의 학업지연행동을 보이게 된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대학생들이 겪었던 부모화 불공평 경험은 자기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학업지연행동을 야기하는 환경적 변인임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상담 장면에서 학업지연행동을 예방하고 이를 위한 접근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학업지연행동을 호소하는 대학생과의 상담 초기 탐색 과정에서 내담자가 자신의 욕구를 포기한 채로 가족 구성원들을 위해 희생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로부터의 적절한 지지 또는 인정이 있는지 확인함과 동시에 자기효능감 수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탐색 및 상담 과정은 부모화 불공평 경험과 같은 과거 개인 내적 요인과 학업지연행동이라는 현재의 부적응 사이를 연결해줌으로써 과거를 통해 현재의 자신에 대해 알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상담자는 학업지연행동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학생에게 어린 시절 부모화와 관련된 경험이 있었는지 탐색해 보고, 이 과정에서 적절한 지지나 격려를 받았는지 알아본다면 학업지연행동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이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부모화 불공평 경험, 학업지연행동 사이에서 이를 매개하는 변인들을 살펴봄으로써 현재의 부적응을 적응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개입방법을 제시한다는 것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부모화 불공평 경험을 한 대학생일수록 자기효능감이 낮을 수 있으므로,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여 그 연관성을 확인한다면 학업지연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상담 개입 및 전략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학업지연행동으로 힘들어하는 대학생들이 건강한 학습습관 및 행동을 확립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수행되었기 때문에 후속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소재 대학생이라는 제한된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는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 가정 형태, 가족 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필요하다. 둘째, 최근 부모화와 관련된 국내 연구에서 척도에 대한 타당화 연구가 진행되었다(이선영, 2017).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타당도가 검증된 척도를 사용하여 국내 환경에 적절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선모 (2013). 부모의 부부갈등이 자녀의 수치심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부모화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1(4), 257-238.
- 강선모 (2014). 부모화가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기자비의 매개효과. **인문학논총**, 36, 431-458.
- 강선모, 임혜경 (2012). 대학생의 과보호 및 부모화 경험이 내현적 자기에 성향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4), 53-78.
- 계수영, 박기환, 엄소용 (2011). 대학생의 완벽주의와 성취목표지향성이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지행동치료**, 11(2), 95-111.
- 김광숙, 김정희 (2007). 꾸물거림과 성격의 5요인, 자기효능감, 자기존중감 및 우울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치료**, 19(4), 933-947.
- 김금순 (2011).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대처능력 및 심리적 안녕감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미진, 권성호, 전현수 (2014). 무용전공학생의 완벽주의와 무용만족도 간의 관계 검증: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2(2), 1-19.
- 김석준 (2017). 대학생의 부모화 하위유형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아영 (1997). 학구적 실패에 대한 내성의 관련 변인 연구. **교육심리연구**, 11(2), 1-19.
- 김용태 (2000). **가족치료이론**. 학지사.
- 김종운, 양민정 (2014). 대학생의 애착과 자기효능감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4(2), 283-299.
- 김지연, 신희천 (2013). 능동 지연행동 척도 타당화 연구. **상담학연구**, 14(3), 1503-1516.
- 노하연 (2017). 남녀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만성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윤선, 이아라 (2017).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대학생의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열린교육연구**, 25(2), 21-41.
- 문비 (2006). 부모화 경험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정덕 (2006). 성장기의 부모화 경험과 자기효능감이 청소년의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승호, 서은희 (2005). 여자 대학생들의 학업적 지연행동의 실태 및 원인분석. **교육학연구**, 43(2), 115-134.

- 박재우 (1998). 과제의 자아 위협도와 완벽주의가 과제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아, 김원일 (2017). 대학생의 부모화 경험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4(6), 127-153.
- 배대식 (2009). 실패공포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9(1), 462-463.
- 백승순 (2014). 지각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지연행동의 관계: 심리적 반발심, 정서 조절양식의 매개효과. 광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은희 (2006). 타인 지향적 완벽주의와 학업적 지연행동의 관계에서 심리적 요인들의 매개효과. **미래교육학연구**, 19(2), 24-41.
- 성지영, 임은미 (2012).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의 관계에서 의지통제의 매개효과. **교육문제연구**, 18(1), 51-69.
- 송승안 (2017). 부모화 경험과 대인관계문제: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석미정 (2016). 자녀의 부모화(Parentification)에 관한 국내연구동향 분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1(2), 53-75.
- 신을진, 고진경 (2011). 능동-수동지연행동과 자기조절학습전략과의 관계. **교육과학연구**, 42(2), 25-47.
- 송은주, 이지연 (2016). 부모화, 성인애착과 초기 성인기 이성관계 만족 관련변인의 구조모형 검증. **인간발달연구**, 23(1), 37-69.
- 신명희, 박승호, 서은희 (2005). 자기조절학습과 지연행동과의 관계. **교육학연구**, 43(4), 277-292.
- 유지원, 강명희, 김은희 (2013). 컴퓨터활용교육: 이러닝 강의를 수강하는 대학생의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관계 규명. **컴퓨터교육학회**, 16(01), 81-95.
- 윤숙경 (1996). 완벽성향과 자기개념에 따른 대학생의 지연 특성의 차이.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혜례 (2003). 알코올중독자 자녀와 비알코올중독자 자녀의 부모화.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영, 김성일, 봉미미 (2016). 학업지연행동의 기질적, 환경적, 동기적 선행요인 검증. **한국교육심리학회**, 30(3), 635-669.
- 이선영 (2017). 한국판 가족돌봄의무 척도(Filial Responsibility Scale - Adult)의 요인구조 분석 및 타당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옥 (2017).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이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 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주현 (2017). 대학생이 지각하는 부모화 경험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자아 존중감과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선, 김정민 (2016). 부모의 과보호, 청소년의 목표추구지향성과 자기구실 만들기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 2016(5)**, 250-250.
- 임성문 (2007). 감각추구, 실패공포, 완벽주의와 대학생의 만성적 지연행동 간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18(3)**, 323-356.
- 임지현 (2015). 부모의 심리적 통제, 실패공포, 자기효능감이 중학생의 학업지연에 미치는 영향.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보라, 김정섭 (2015). 대학생용 학업지연행동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교육학연구, 21(3)**, 53-83.
- 전소연, 이정운 (2012). 부모화 경험이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수치심의 매개효과. **인간이해, 33(1)**, 185-200.
- 전현수 (2013). 심리적 부모화가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불안정 성인애착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은영, 정태연 (2005). 부모화된 자녀의 개인적 및 가족관계적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4)**, 833-853.
- 조이정 (2015). 대학생의 부모화 및 과보호 경험, 내현적 자기에, 진로미결정 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아름, 송현주 (2014). 청소년의 부모화 경험과 내면화된 수치심. **심리치료: 다학제적 접근, 14(2)**, 117-139.
- 최명선, 강지희 (2008). 청소년의 아동기 부모화 경험이 완벽주의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08(06)**, 164-164.
- 최지연 (2001).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아름 (2017). 대학생의 부모화 경험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대인관계능력의 매개효과. **신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영숙 (2011). 완벽주의, 자기효능감, 실패공포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8(4)**, 277-299.
- 홍승일, 현명호 (2005). 지연경향성과 심리적 불편감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 대처방식, 과제의 자아위협도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24(1)**, 259-277.
- 홍영란 (2009).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학령기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간호학회지, 15(4)**, 392-400.
- 홍혜영 (1994). 완벽주의 성향, 자기효능감 우울과의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영석 (2015). 성실성, 자기효능감이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메타인지전략의 조절

- 효과.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임숙, 장성숙 (2010).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학업적 지연행동: 자기효능감과 완벽주의를 매개로. **학생생활상담**, 28, 25-43.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 -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Chase, N. D. (1999). *Parentification: An overview of theory, research, and societal issues*. New York: Guilford.
- Ferrari, J. R., Johnson, J. L., & McCown, W. G. (1995). *Procrastination research in: Procrastination and task avoidance. The Springer Series in Social Clinical Psychology*. Springer, Boston, MA.
- Ferrari, J. R., & Olivette, M. J. (1993). Perceptions of parental control and the development of indecision among late adolescent females. *Journal of Adolescence*, 28, 963-970.
- Ferrari, J. R., Parker, J. T., & Ware, C. B. (1992). Academic procrastination: Personality correlates with Myers-Briggs types, self-efficacy, and academic locus of control.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7, 495-502.
- Harold, G. T., Fincham, F. D., Osborne, L. N., & Conger, R. D. (1997). Mom and dad are at it again: Adolescent perceptions of marital conflict and adolescent psychological distress. *Developmental Psychology*, 33, 333-350.
- Jurkovic, G. J. (1997). *Lost childhoods: The plight of the parentified child*. New York: Brunner/Mazel.
- Jurkovic, G. J., Jesse, E. H., & Goglia, L. R. (1991). Treatment of parental children and their families: Conceptual and technical issues.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19, 302-314.
- Jurkovic, G. J., Kuperminc, G. P., Sarac, T., & Weisshaar, D. (2005). *Role of filial responsibility in the post-war adjustment of Bosnian young adolescents*.
- Klassen, R., & Kuzucu, E. (2008). Academic procrastination and motivation of adolescents in Turke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9, 69-81.
- Kuperminc, G. P., Jurkovic, G. J., & Casey, S. (2009). Relation of filial responsibility to the personal and social adjustment of Latino adolescents from immigrant famili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3, 14-22.

- Lay, C. H. (1986). At last, my research article on procrastinat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0, 474-495.
- Macintyre, P. (1962). Dynamics and treatment of passive aggressive underachievers.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18, 95-108.
- Missildine, H. (1963). *Your inner child of the past*. New York: Simon & Schuster.
- Onwuegbuzie, A. (2000). Academic procrastination and perfectionistic tendencies among graduate student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15, 103-109.
- Rothblum, E. D., Solomon, L. J., Murakami, J. (1986). Affective, cognitive, and behavioral differences between high and low procrastinator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3, 387-394.
- Ryan, N. E. (1996). Family dysfunction, parental attachment, and career search self-efficacy among community college stud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 84-89.
- Solomon, L. J., & Rothblum, E. D. (1984). Academic procrastination: frequency and cognitive-behavioral correlat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503-509.
- Stein, J. A., Riedel, M., & Rotheram-Borus, M. J. (1999). Parentification and its impact on adolescent children of parents with AIDS. *Family Process*, 38, 193-208.
- Sommer, W. G. (1990). Procrastination and cramming: How adept student ace the system.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39, 5-10.
- Steel, P. (2007). The nature of procrastination: A meta-analytic and theoretical review of quintessential self-regulatory failure. *Psychological Bulletin*, 133, 65-94.
- Tuckman, B. W. (1991). The Development and concurrent validity of the procrastination Scale. *Educational Psychological Measurement*, 51, 473-480.
- Van Eerde, W. (2003). A meta-analytically derived nomological network of procrastin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5, 1401-1418.

논문 접수: 2019년 1월 16일

논문 심사: 2019년 1월 27일

게재 승인: 2019년 2월 8일

<ABSTRACT>

The Effect of Parentification Experience of University Students on Academic Procrastination: Focused on Mediating Effect of Self Efficacy

Yu, Chang-Ho(SangMyung University)

Chang, Seok-Jin(SangMyung University)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arentification experience of university students on academic procrastination and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self - 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fication experience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of university students. A total of 309 university students recruited from universities in Seoul and metropolitan cities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data were processed through SPSS and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were conducted. Additionally Baron and Kenny's (1986) method was implemented for proof of mediation effects followed by Sobel test.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parentification-caretaking had no relation with academic procrastination and self-efficacy. However, parentification-injustice positively correlated with academic procrastination, while self - efficacy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academic procrastination. Parentification-injustice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self-efficacy. Second, the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 parentification-injustice on academic procrastination was partly mediated by self-efficacy. The current study has produced a new result that parentification is an significant environmental factor which impacts academic procrastin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ful for the counseling interventions and the development of programs for parentified university students. The limitation and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were discussed.

★ **Key words:** parentification, parentification-caretaking, parentification-injustice, procrastination, self-efficacy